

Original Article

Open Access

KPNFA 운영 및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설문조사 연구

임재현 · 나은진¹ · 이문규^{2†}

더랩협동조합, ¹수완요양병원 재활센터, ²이상한움직임연구소

A Survey of Operation and Development Direction in KPNFA

Jae-Heon Lim · Eun-Jin Na¹ · Moon-Kyu Lee^{2†}

The Lab Cooperative

¹*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Suwan Medical Center*

²*Geeky Movement Lab*

Received: December 7, 2018 / Revised: December 14, 2018 / Accepted: December 14, 2018

© 2018 Journal of Korea Proprioceptive Neuromuscular Facilitation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Abstract |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rvey the operation and development direction in KPNFA.

Method: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consisted of physical therapists who had a KPNFA membership. The satisfaction levels for each item (KPNFA impression, educational programs, and clinical application) were measured using a 5-point Likert scale. The survey was performed during June and July 2018. The total questionnaire was comprised of 648 samples. For the data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and Spearman correlation analysis were used to compare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all items.

Results: In the questionnaire, the impression of KPNFA was 69.21, the instructor specialization in the educational programs was 74.22, and helpful interventions for clinical application scored 74.96. KPNFA's image is competitive; friendly items scored the highest, and operation suitability and communication scored the lowest. The most important factor of the educational program was the quality of the instructors. The most helpful item was the education intervention program. The nervous system was applied to the patient with the highest response. The age of subjects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KPNFA impression, KPNFA branch impression, and branch problem solving. The work duration of subjects showe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instructor specialization. A regular member duration of subjects showe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teaching method, instructor specialization.

Conclusions: The KPNFA survey was performed for the first time. In the future, this data will be utilized as the basis for KPNFA policy.

Key Words: KPNFA, Education program, Satisfaction, PNF, Development

†Corresponding Author : Moon-Kyu Lee (moonkyu.e@gmail.com)

I. 서론

신경생리학적 운동치료 방법 중 하나인 고유수용성 신경근촉진법(proprioceptive neuromuscular facilitation, PNF)은 의사이자 신경생리학자였던 Kabat (1947) 박사와 물리치료사인 Maggie knott (1953)가 창시한 기법이다(Adler et al., 2008). Kabat는 sherrington의 후방전(after discharge), 연속적 유도(successive induction), 가중(summation), 상반지배(reciprocal innervation)의 신경생리학적 개념을 토대로 PNF의 이론적 밑그림을 마련하였으며, Maggie knott는 대각선 운동패턴과 치료기법 개발하여 지금의 PNF가 발전하는데 기여하였다(Kabat, 1947). 한국의 PNF는 1994년 처음 도입되어 물리치료의 전문성 강화와 국민 의료보전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선대의 많은 분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대한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법학회(Korea PNF association, KPNFA)는 1994년 배성수 초대회장을 취임으로 전국 7개의 시도회가 창립되었으며, 이후 11개 시도회가 창립되어 현재 16개 시도회, 회원 수 6000명이 넘는 학회로 발전해 왔다(Bae et al., 2003).

KPNFA가 발전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무엇보다도 PNF 교육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다. 초창기부터 시행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20년 넘게 KPNFA는 국내 물리치료사들에게 PNF 이론과 실기를 전달하였다. KPNFA의 교육과정은 첫 번째 단계로 베이직 코스, 두 번째 단계로 파트 A, B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 IPNFA 베이직 코스(Level 1&2), IPNFA 어드밴스 코스(Level 3,4,5)로 구성되어 있다. 베이직 코스는 총 20시간으로 PNF 철학 및 기본절차, 테크닉에 대한 이론 내용으로 이뤄지며, 파트 A코스는 신체 부위별로 어깨, 골반, 상지, 하지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파트 A를 토대로 목체간, 매트활동, 보행활동을 증진하는 파트 B코스로 운영되었다. 이런 과정을 이수한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국내 어드밴스 코스 또는 IPNFA 베이직 코스를 이수하고 나면 KPNFA 정회원으로 등록이 되고 중추신경계발달치료 항목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20여년 이상을 이어져온 PNF 교육프로그램이지만 KPNFA 회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교육을 계획하고 최적의 교육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요인과 현재의 만족도를 알아보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Fitzpatrick, 1991). PNF의 질적인 임상경험을 위해 회원들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인이다. 그 동안 PNF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나 학회 이미지에 대한 연구는 전무할 뿐만 아니라 PNF를 수강하는 참가자들에 대한 조사연구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Hwang과 Kwon (2012)의 연구가 유일하게 대한정형도수물리치료 연수교육 수강생들과 PNF 연수교육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환경 특성에 대한 연구를 시행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단지 교육환경에 대한 내용일 뿐 PNF 교육에 대한 만족도나 인식도에 대한 내용은 아니었다. 다른 학회를 살펴보면, 대한정형도수물리치료학회 연수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연구(Kim, 2017)에서는 교육프로그램 과정별로 소개과정, 기본과정, 중급과정, 심화과정으로 구분하여 만족도를 분석하였으며, Kim (1998)은 정형물리치료 강사들의 교육효과에 대한 조사를 하였고, 정형물리치료 강의평가분석(Kim, 1999)에서는 회원들의 강의 만족도, 이해도, 강사만족도, 강의교재 등 다양한 항목을 통해 회원들의 정형도수치료 연수교육 참가자들의 인식도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심장호흡물리치료 연수교육 프로그램 적합성 조사연구(Bang & Kim, 2015)에서도 교육과정별로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여 심장호흡물리치료 연수교육의 문제점과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한 노력을 기해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조사연구들은 강의 만족도나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에 국한되었다. 더 많은 물리치료사의 PNF에 대한 관심과 교육프로그램 참여를 위해서는 교육이나 강좌의 만족도 조사도 중요하지만, 학회가 지니고 있는 이미지나 호감도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학회의 이미지가 형성되는 과정은 회원들의 마음으로부터 형성된 여러 가지 태도들이 합성되어 나타나는 것이다(Ji & Lee, 2018). 각 회원

들의 마음에서 형성되기 시작한 이미지가 점차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구체적으로는 학회 교육, 연수강좌, 학술대회 등 개인의 경험 및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획득된 정보가 머릿속에 이미지로 형성된다. 학회가 진행하는 학술연구사업, 교육사업, 정책사업 등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지가 한 요인을 담당할 수 있다. 학회이미지나 호감도 형성은 회원들부터 시작되며 여러 경로를 통해 다른 치료사들에게 전파되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교육이나 강좌라고 할지라도 실제 임상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렵다면 지속적으로 PNF 교육이 발전하기 어렵다. 실제 임상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보조할 수 있는 각 시도회의 집담회 및 기타 학술활동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학회의 운영과 발전방향을 위해서 파악해야 할 내용은 학회에 대한 호감도나 이미지,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이 임상현장에 잘 활용하고 있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PNF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회원들의 만족도나 의견을 알아본 연구는 없었으며, 실제 KPNFA에서 습득한 지식과 실기가 임상현장에서 어떻게 얼마만큼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PNF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했던 회원들의 만족도를 분석하여 회원들의 요구에 부응했는지 그 만족도를 알아보고 향후 교육프로그램 개선 및 학회정책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실질적인 교육수요자인 치료사들의 요구사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정회원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함이며, 나아가 학회 운영의 개선 과제들을 찾아 추진함으로써 미래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의 대상자는 KPNFA 정회원으로 등록된 자

이며, 구글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 조사와 종이 설문지를 통한 오프라인 조사 2가지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기간은 2018년 6월과 7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온라인 조사는 2010년 이후 KPNFA 16개 시도회에서 진행된 국제코스와 어드밴스 코스를 이수한 후 중앙회에 정회원으로 등록된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문자메시지의 설문링크를 통해 291명이 설문에 응답하여 조사 응답률은 29.1%였다. 오프라인 조사는 종이설문지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PNF 정회원이 근무하는 병원 중 무작위로 16개 시도회 기관 중 53개 기관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500명에 배포한 설문 중에서 357명의 설문지가 회수되어 조사응답률 71.4%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 동의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설문지에 응답한 총 대상자는 648명이었다.

2. 조사 항목 및 설문 절차

설문지의 조사항목은 대상자의 일반적 정보, KPNFA 호감도 및 이미지, 교육프로그램 만족도, 임상활용도로 구성하였으며, 총 문항은 33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일반적 정보는 10개 문항, 호감도 및 이미지는 8개 문항, 교육프로그램 만족도는 10개 문항, 임상활용도는 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조사 항목은 PNF 임상경력 15년 이상인 KPNFA 강사 3인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작성하였다. 일반적 정보와 일부항목을 제외한 대다수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답변이며 점수가 낮을수록 부정적인 답변이다. 종이 설문지는 정회원이 근무하는 병원 중 53개 기관을 무작위로 선정한 후 설문지와 설문작성 안내사항이 담긴 서류봉투 및 회신용 서류봉투를 함께 동봉하였으며, 작성된 설문지를 회신용 봉투에 넣어 바로 보낼 수 있도록 작업한 후 각 기관으로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사전에 각 기관에 설문지 배포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진행하였다. 온라인 설문은 종이 설문지와 동일한 내용으로 구글 설문지로 제작되었으며, 정회원들에게 설문지 링크를

보내 바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조사 설계

본 설문연구를 위한 TF팀이 2018년 3월에 구성되어 설문 내용 및 설문 항목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여 확정하였으며, 조사 대상자의 범위를 규정하였다. 그 이후, 구글 설문지를 통해 웹페이지를 구축하였고, 그 내용과 동일한 종이설문지 형식을 제작하였다. 설문지를 인쇄한 후 TF팀과 함께 시뮬레이션을 한 후 오류나 문제점을 검토한 후 조사를 진행하였다. 7월까지 회수한 설문지와 온라인 구글 설문지를 수합하여 조사결과를 코드화 작업을 하였으며, 항목별로 표기되지 않은 부분은 자료처리에서 제외하였다. 종이 설문지는 나중에 데이터 검증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여 확인 작업이 가능하도록 설문지에 번호를 기록하여 코드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검증 완료 후 자료 분석을 시행하였다.

4. 자료 분석

최종 조사된 표본 데이터의 잘못된 표기나 누락된 데이터가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한 후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Likert 5점 척도로 진행된 항목별 응답을 수치화하기 위해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다. 5개의 응답 중 매우 그렇다, 매우 만족한다, 매우 좋아한다 답변은 100점, 그렇다, 만족한다, 좋아한다의 답변은 75점, 보통이다 50점, 그렇지 않다, 만족하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는다, 답변은 25점, 매우 그렇지 않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는 0점으로 수치화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항목은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으며, 스피어만 상관계수를 통해 일반적 특성과 학회 호감도, 교육프로그램 만족도, 임상활용도와 상관관계 분석을 진행하였다. 자료 분석은 윈도우용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유의수준 $\alpha=0.05$ 로 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이 연구의 연구대상자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Table 1). 전체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30.20세, 치료사 평균 근무기간은 6.33년, 평균 정회원 취득기간은 3.53년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비중은 전체 648명 중 남성이 300명(46.30%), 여성이 348명(53.70%)으로 나타났다. 재직 기관의 형태는 대학병원 24명(3.70%), 종합병원 116명(17.90%), 요양 및 일반병원 433명(66.82%), 의원 32명(4.94%), 센터 9명(1.39%), 기타(무직, 의료기회사, 복지관, 보건소 등) 33명(5.09%)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여자가 남자보다 7.4% 더 많았으며, 기관형태는 요양 및 일반병원이 가장 많았으며, 개인이 운영하는 센터가 가장 적었다.

최종학력은 박사 21명(3.24%), 석사 79명(12.19%), 학사 337명(52.00%), 전문학사 209명(32.25%), 무응답 2명(0.3%)로 나타났다. 근무지역은 강원 7명(1.08%), 경기 58명(8.95%), 경남 40명(6.17%), 경북 47명(7.25%), 광주 27명(4.17%), 대구 82명(12.65%), 대전 24명(3.70%), 부산 56명(8.64%), 서울 85명(13.12%), 울산 39명(6.02%), 인천 17명(2.62%), 전남 19명(2.93%), 전북 84명(12.96%), 제주 14명(2.16%), 충남 9명(1.39%), 충북 40명(6.17%)이었다. 최종 학력은 학사가 가장 많았으며, 대상자의 근무지역은 서울과 전북이 가장 많았으며, 강원과 충남이 가장 낮았다.

2. 항목별 내용 분석

1) 학회 호감도 내용 분석

KPNFA 전반적인 호감도에 대한 질문한 결과 전체 평균은 69.21점이었으며, Top2(매우 좋아한다+좋아한다)는 406명(62.66%), Bottom2(좋아하지 않는다+전혀 좋아하지 않는다)는 24명(3.71%)로 나타나, Bottom2에 비해 Top2의 비중이 58.95% 높았다. 참가자들의 KPNFA 소속 시도회 전반적인 호감도에 대한 질문한 결과 전

Table 1. The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haracteristics		Number	Percentage
Gender	Male	300	46.30
	Female	348	53.70
Employment	University hospital	24	3.70
	General hospital	116	17.90
	Hospital	433	66.82
	Clinic	32	4.94
	Welfare center	9	1.39
	Etc	33	5.09
Education	Doctor	21	3.24
	Master	79	12.19
	Bachelor	337	52.00
	Associate	209	32.25
Age (years)		30.20±5.85 ^a	
Work duration (years)		6.33±4.70	
KPNFA regular member duration (years)		3.53±3.05	

^a: Mean±standard deviation

체 평균은 66.91점이었으며, Top2(매우 좋아 한다+좋아 한다)는 366(56.48%), Bottom2(좋아하지 않는다+전혀 좋아하지 않는다)는 42명(6.48%)로 나타나, Bottom2에 비해 Top2의 비중이 50%가 높았다.

KPNFA가 회원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는냐고 질문한 결과 전체 평균은 57.36점이었으며, Top2(매우 그렇다+그렇다)는 248명(38.26%), Bottom2(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는 108명(16.66%)로 나타나, Bottom2에 비해 Top2의 비중이 21.60% 높았다. KPNFA사업 만족도에 대한 질문한 결과 전체 평균은 59.39점이었으며, Top2(매우 만족한다+만족한다)는 253명(39.04%), Bottom2(만족하지 않는다+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는 58명(8.95%)로 나타나 Bottom2에 비해 Top2의 비중이 30.09% 높았다(Table 2).

2) 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내용 분석

KPNFA 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대한 질문한 결과 전체 평균은 65.53점이었으며, Top2(매우 만족한다+만족한다)는 375명(57.87%), Bottom2(만족하지 않는다+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는 46명(7.10%)로 나타나

Bottom2에 비해 Top2의 비중이 50.77% 높게 나타났다. KPNFA 교육 프로그램이 임상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반영하고 있는냐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 평균은 69.55점이었으며, Top2(매우 그렇다+그렇다)는 438명(67.60%), Bottom2(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는 41명(6.33%)로 나타나 Bottom2에 비해 Top2의 비중이 61.27% 높게 나타났다.

KPNFA 교육 프로그램이 최신 지식과 정보를 반영하고 있는냐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 평균은 65.75점이었으며, Top2(매우 그렇다+그렇다)는 373명(57.56%), Bottom2(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는 51명(7.87%)으로 나타나 Bottom2에 비해 Top2의 비중이 49.69% 가량 높았다. KPNFA 강사수업 진행방식 만족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 평균은 67.54점이었으며, Top2(매우 그렇다+그렇다)는 404명(62.35%), Bottom2(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는 32명(4.93%)으로 나타나, Bottom2에 비해 Top2의 비중이 57.42% 높았다.

KPNFA 강사는 전문 기술과 지식을 갖추었느냐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 평균은 74.22점이었으며, Top2(매우 그렇다+그렇다)는 511명(78.86%), Bottom2(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는 23명(3.55%)로 나타나

Table 2. Contents analysis according to items

	Items	Response					Mean	Standard deviation
		Very good	Good	Medium	Bad	Very bad		
Impression	KPNFA impression	122(18.83)a	284(43.83)	218(33.64)	18(2.78)	6(0.93)	69.21	20.41
	KPNFA branch impression	123(18.98)	243(37.50)	240(37.04)	33(5.09)	9(1.39)	66.91	22.15
	Communication with members	66(10.19)	182(28.07)	292(45.06)	93(14.35)	15(2.31)	57.36	22.90
	Business satisfaction	56(8.64)	197(30.40)	333(51.39)	49(7.56)	9(1.39)	59.39	20.09
Educational program satisfaction	Education satisfaction	83(12.81)	292(45.06)	226(34.88)	36(5.56)	10(1.54)	65.53	20.87
	Reflect on curriculum required for clinical	116(17.90)	322(49.70)	168(25.93)	34(5.25)	7(1.08)	69.55	20.92
	Reflecting latest knowledge and information	92(14.20)	281(43.36)	222(34.26)	44(6.79)	7(1.08)	65.75	21.22
	Teaching method	90(13.89)	314(48.46)	211(32.56)	24(3.70)	8(1.23)	67.54	19.95
	Instructor specialization	144(22.22)	367(56.64)	112(17.28)	17(2.62)	6(0.93)	74.22	19.12
	Regular member acquisition time	75(11.57)	307(47.28)	191(29.48)	60(9.26)	14(2.16)	64.25	22.27
	Branch problem solving	79(12.19)	262(40.43)	247(38.12)	48(7.41)	11(1.70)	63.52	21.56
	Satisfaction of education contents	81(12.50)	258(39.81)	243(37.50)	52(8.02)	13(2.01)	63.21	22.11
clinical application	Help with treatment	156(24.07)	353(54.48)	124(19.14)	9(1.39)	5(0.77)	74.96	18.69
	Various Clinical accessibility	60(9.26)	195(30.09)	259(39.97)	105(16.20)	18(2.78)	56.82	23.55

a; N (%)

Bottom2에 비해 Top2의 비중이 75.31% 높게 나타났다. 정회원까지 필요한 교육시간과 기간의 적절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 평균은 64.25점이었으며, Top2(매우 그렇다+그렇다)는 382명(58.85%), Bottom2(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는 74명(11.42%)으로 나타나 Bottom2에 비해 Top2의 비중이 47.43% 높았다.

소속 시도회에서 참가자들의 고충 처리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 평균은 63.52점이었으며, Top2(매우 그렇다+그렇다)는 341명(52.62%), Bottom2(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는 59명(9.11%)로 나타나 Bottom2

에 비해 Top2의 비중이 43.51% 높게 나타났다. 교육비 대비 교육내용 만족도를 질문한 결과 전체 평균은 63.21점이었으며, Top2(매우 만족한다+만족한다)는 339명(52.31%), Bottom2(만족하지 않는다+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는 65명(10.03%)으로 나타나 Bottom2에 비해 Top2의 비중이 42.28% 높게 나타났다(Table 2).

3) 임상활용도 내용 분석

PNF 교육을 통한 지식과 기술이 물리치료 업무에

Table 3. KPNFA image contents analysis

Items	Yes		No	
	Number	Percentage	Number	Percentage
KPNFA-accuracy	491	75.77	154	23.77
KPNFA-competitiveness	510	78.70	135	20.83
KPNFA-belief	483	74.54	162	25.00
KPNFA-friendly	508	78.40	138	21.30
KPNFA-change	410	63.27	236	36.42
KPNFA-communication	326	50.31	319	49.23
KPNFA-operation clean	382	58.95	262	40.43
KPNFA-important to members	415	64.04	229	35.34

도움이 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결과 전체 평균은 74.96점으로 나타났으며, Top2(매우 그렇다+그렇다)는 509명(78.55%), Bottom2(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는 14명(2.16%)으로 나타나, Bottom2에 비해 Top2의 비중이 76.39% 높게 나타났다. PNF 교육코스를 통해 다양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결과 전체 평균은 56.82점으로 나타났으며 Top2(매우 그렇다+그렇다)는 245명(39.35%), Bottom2(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는 123명(18.98%)으로 나타나 Bottom2에 비해 Top2의 비중이 20.37% 높았다(Table 2).

3. KPNFA 이미지 내용 분석

KPNFA 학회 이미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경쟁력 있다’가 78.70%, ‘친근하다’는 78.40%, ‘정확하다’는 75.77%, ‘믿음이 간다’는 74.54%로 높은 호감도 이미지 항목이었으며, ‘회원과의 소통이 활발하다’ 49.23%, ‘운영이 투명하다’는 40.43%, ‘변화를 선도한다’는 36.42%, ‘회원을 중시한다’는 35.34%는 낮은 호감도 이미지 항목으로 나타났다(Table 3).

4. KPNFA 교육 사업과 교육 프로그램 분석

1) KPNFA 교육 사업 분석

KPNFA 교육 선택 이유는 ‘본인의 치료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가 51.3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자격증 취득을 위해’ 31.64%, 학문적 궁금증 때문에, 강의 질이 좋다고 들어서 순으로 나타났다. PNF 교육 추천 질문에 ‘추천한다’가 ‘추천하지 않는다’에 비해 90.12% 가량 높았으며, 추천한다면 어떤 코스를 추천할 것이냐는 추가 질문에 ‘레벨코스 이상’이 72.53%, ‘국내교육과정’이 23.92%로 나타나 레벨코스 이상을 더 많이 추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움이 되었던 사업으로는 ‘교육 프로그램’이 44.6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각 시도회 집담회 27.93%, 중앙회 특별 학술강연(안다강좌, movement link강좌, LSVT강좌) 21.91%, 학술대회 3.24% 순이었다(Table 4).

2) KPNFA 교육 프로그램 적절성 분석

KPNFA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 1순위로는 ‘강사의 질’이 343명(52.9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순위 또한 ‘강사의 질’, 3순위는 ‘교재 및 교육자료’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공통점은 교육내용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순위가 1,2,3순위 모두에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Table 4). PNF 교육과정이 치료사 업무 중 가장 도움을 준 항목을 1순위로는 ‘중재’가 196명(30.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순위는 ‘신체기능 문제 해결(impairment)’ 189명(29.17%), 3순위는 ‘중재’ 171명(26.39%) 순으로 나타났으며, 두 번째는 모두 활동문제 해결이었다. PNF 적용범위 1순위로는 ‘신경

Table 4. Educational business analysis

Items	Response	Number	Percentage
Reason for choosing education	Quality of lecture	33	5.09
	Insufficient therapy	333	51.39
	Academic questions	77	11.88
	Acquisition of certificate	205	31.64
Educational recommendation	Recommendation	616	95.06
	Level course	470	72.53
	Domestic course	155	23.92
	No recommendation	32	4.94
Helpful business	Education programs	289	44.60
	Branch academic meeting	181	27.93
	Special lecture	142	21.91
	Academic conference	21	3.24

Table 5. Educational program relevance analysis

Items	Response	1st	2nd	3rd
The most important part of course	The quality of the instructor	343(52.93) ^a	151(23.30)	78(12.04)
	Facility and environment	20(3.09)	90(13.89)	117(18.06)
	Teaching materials and training materials	22(3.40)	104(16.05)	127(19.60)
	Attitudes and motivations of participants	82(12.65)	115(17.75)	116(17.90)
	Education content	148(22.84)	147(22.69)	126(19.44)
	Number of participants per instructor	17(2.62)	40(6.17)	82(12.65)
The most helpful part of the education program	Evaluation	87(13.43)	84(12.96)	89(13.73)
	Intervention	196(30.25)	136(20.99)	171(26.39)
	Clinical reasoning	55(8.49)	86(13.27)	117(18.06)
	Solving the impairment	142(21.91)	189(29.17)	104(16.05)
	Solving the activity	165(25.46)	148(22.84)	160(24.69)
Current patient care application	Pediatric	14(2.16)	16(2.47)	55(8.49)
	Geriatric	141(21.76)	198(30.56)	158(24.38)
	Sports	15(2.31)	60(9.26)	95(14.66)
	Musculoskeletal	85(13.12)	215(33.18)	222(34.26)
	Neuro	387(59.72)	138(21.30)	50(7.72)
	Cardiorespiratory	4(0.62)	17(2.62)	53(8.18)

^a; N (%)

계'가 387명(59.7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 3 순위는 '근골격계'로 나타났다(Table 5).

5. 일반적 특성과 교육만족도, 강사만족도, 임상활용도 항목 간의 상관관계

나이와 교육만족도, 강사만족도, 임상활용도 항목

Table 6. Correlation of general characteristics and education satisfaction, instructor satisfaction, clinical application items

	Age		Work duration		A regular member duration	
	r	p	r	p	r	p
KPNFA impression	0.11*	0.01	0.07	0.10	0.06	0.17
KPNFA branch impression	0.09*	0.02	0.03	0.41	0.04	0.29
Feedback	0.05	0.23	0.04	0.32	0.07	0.09
Business satisfaction	0.05	0.25	0.01	0.81	0.04	0.32
Education satisfaction	0.06	0.16	0.03	0.53	-0.01	0.83
Reflect on the training course required for clinical	0.02	0.70	-0.01	0.84	-0.02	0.69
Reflecting latest knowledge and information	0.06	0.14	0.05	0.23	0.04	0.34
Teaching method	-0.01	0.77	-0.05	0.17	-0.08*	0.05
Instructor specialization	-0.07	0.08	-0.09*	0.02	-0.13*	0.00
Regular member acquisition time	0.06	0.15	0.04	0.28	0.03	0.40
Branch problem solving	0.09*	0.03	0.07	0.08	0.05	0.20
Satisfaction of education contents	0.07	0.07	0.04	0.29	0.01	0.80
Help with treatment	0.05	0.24	0.05	0.22	0.03	0.42
Various clinical accessibility	0.07	0.06	0.02	0.63	0.01	0.99

*p<0.05

간의 상관관계에서 KPNFA 호감도($r=0.11$), KPNFA 소속 시도회 호감도($r=0.09$), 시도회 고충처리($r=0.09$)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p<0.05$). 치료사의 근무기간에서는 강사 전문성($r=-0.09$)에서만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정회원 취득기간에서는 수업방식($r=-0.08$)과 강사 전문성($r=-0.13$)에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p<0.05$). 나머지 항목에서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IV. 고 찰

KPNFA의 학회 창립과 함께 시작된 베이직 코스와 파트 코스 교육프로그램은 임상 물리치료사들에게 PNF의 이론과 실기 적용방법을 널리 전파했으며 물리치료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였다. 16개 시도회에서 개최되는 PNF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뤄져 오고 있지만,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이나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나 임상활용도, 호감도 등 학회 전반에 걸친 운영과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 연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학회 정회원들을 대상으로 호감도와 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임상 활용도를 분석하여 학회 운영의 개선 과제들을 찾아 미래의 KPNFA가 올바른 발전방향을 찾기 위함이 목적이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성별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은 참여를 하였으며, 기관형태는 참가자들 중 약 80%가 병원 급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 (1999)의 정형물리치료 강의평가 분석에서는 60%가 의원급에 근무하였으며, 정형도수치료연구 교육효과 설문조사에서도 의원급이 가장 높은 47.7%를 나타내어 PNF 교육 대상자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는 PNF 교육을 수강하는 대상자들이 보험청구가 가능한 규모가 있는 임상현장에서 PNF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대상자 평균 연령이 30세로 주로 젊은 층의 치료사들이 PNF 교육에 많이 참여하였다. 또한, Kim (2017)와 Bang과 Kim (2015)의 연구

에서도 참가자들이 주로 20대와 30대인 것으로 나타나 물리치료사 젊은 연령층의 교육 참여에 대한 선호도와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PNFA 호감도는 69.21점, 시도회 호감도는 66.91점으로 나타났으며 회원의견 반영에 대한 전체 평균은 50%대로 낮게 나타났으며, 사업 만족도면에서 59.39점으로 나타났다. 학회 호감도와 이미지 항목에서 낮게 나타난 부분이 회원과의 소통이었던 부분이었는데 회원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실제 호감도와 이미지에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교육사업 내용 중 도움이 되었던 학회 사업으로는 ‘교육 프로그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각 시도회 집담회, 중앙회 특별 학술강연, 학술대회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프로그램 만족도에서는 강사의 전문성 항목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임상에 필요한 교육과정 반영과 강사수업 진행방식의 적절성 순으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임상활용도 항목에서 치료업무에 도움이 된다는 부분에서는 74.96점으로 나타났지만, 상대적으로 PNF로 다양한 임상접근이 가능하다는 부분에서 56.82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향후 질환별 특별과정이나 다분야 접근법에 대한 전문 교육과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 임상에서 적용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신경계가 가장 높게 나타나 이 부분을 반영하여 교육과정에서도 신경계에 국한된 내용이 아닌 근골격계, 스포츠 등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임상적용 방법들에 대한 내용을 추가한 교육과정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전부터 다양한 교육과정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이 있었고 학회임원들의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었지만 교육과정 개발에는 적극성을 보이지 못하였다. 향후 특별교육과정에 대한 부분이 교육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

학회 이미지로 가장 긍정적인 항목은 ‘경쟁력 있다’와 ‘친근하다’ 이었으며 ‘회원과의 소통이 활발하다’와 ‘운영이 투명하다’ 항목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PNF가 치료사로서 가져야 할 생각의 틀과 치료방법을 알려주며, 많은 회원을 보유하고 있고 다른 학회보다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경쟁력과 친근함에서 많은 점수를 준 것으로 생각되지만 학회가 방대해지고 16개 소속 시도회에서 열리는 교육이 많다보니 회원 수가 많아지면서 운영과 회원과의 소통 면에서 정회원들의 불신감이 증대된 것으로 판단된다.

KPNFA 교육 선택 이유는 ‘본인의 치료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가 51.3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가 31.64%로 나타났다. Hwang과 Kwon (2012)의 연구에서 OMPT와 PNF 교육의 참가이유에 대한 항목에서 참가자의 43.6%, 44.8%가 각각 가장 높게 ‘환자치료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라고 답변을 해 본 연구의 PNF 교육 선택 이유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자격증 취득이 교육 선택이유의 두 번째인 이유는 보습수가 청구가 가능하면서 이수증의 유무가 본인의 연봉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Hwang과 Kwon (2012)의 연구에서 OMPT보다 PNF가 높은 연봉이나 직장의 요구에 의해서 교육에 참가한다고 응답한 결과라고 답변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PNF 교육 추천은 ‘추천한다’가 ‘추천하지 않는다’에 비해 90.12% 가량 높았으며, 추천한다면 어떤 코스를 추천할 것이냐는 추가 질문에 레벨코스 이상을 48.61%가 더 많이 추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교육과정이 패턴 학습에 치우쳐 실제 임상적 내용이 더 부족한 것으로 생각되며, 국제코스는 교육 중에 익힌 내용을 실제 환자에게 적용하는 환자치료 시간이 있는 반면에 국내과정은 환자치료 영상을 교육 중에 발표함으로써 환자치료를 대신하기 때문에 직접 환자를 치료한 후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지 못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학회에서 가장 많이 시행되는 사업인 ‘교육 프로그램’이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고,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특별 학술강연의 만족도도 21.91%로 높게 나타나 앞으로 중앙회에서 지속적인 특강과 학술강연을 정례화 하는 사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PNF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항목은 강

사의 질이었으며, 두 번째 높게 나타난 항목이 교육내용이었다. 교육내용은 새롭게 개편된 교육과정 부분이 있으므로 향후 다시 설문조사 시에 이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강사의 질은 강사교육의 확대 및 강사간의 지식교류 및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기적인 강사교육의 시간과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강사프로그램 또한 정례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PNF 교육과정이 치료사 업무 중 가장 도움을 준 항목이 중재로 나타났으며, 1,2,3순위 모두에서 활동문제 해결이 각 순위에서 두 번째 순위를 차지한 것은 이제 PNF가 단순히 가동범위와 근력에 그치는 방법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실제생활과 연루된 환경에서의 임무나 과제를 해결하려는 부분에서도 PNF를 이용한다는 점은 앞으로 활용도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 특성과 설문 항목과의 상관성을 알아본 결과에서 나이와 KPNFA 호감도와 각 시도회 호감도, 시도회 고충처리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나이가 많을수록 호감도가 높아지고 고충처리를 잘 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회원 취득기간과 3가지 항목은 서로 유의한 상관성을 나타내지 않았으므로,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의 참가자가 교육을 듣게 되었을 때 학회 호감도가 더 좋은 것으로 판단된다. 즉 정회원 기간이 오래된 사람이 아닌 처음 교육을 듣게 된 연령이 많은 사람들의 호감도가 더 높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현재 PNF 교육의 참가기준은 물리치료 면허증이 있는 경우면 연차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의 참가연령을 높이는 방법이 학회와 시도회의 호감도를 높이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치료사의 근무기간과 강사 전문성에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정회원 취득기간에서는 강사의 수업진행방식과 강사 전문성에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정회원 취득기간이 길수록 치료사의 연차가 높을수록 강사의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PNF 학회의 강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강사로서 갖추어야 할 인성과

신념, 태도, 지식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 학회 차원의 강사능력 배가를 위한 조직적 지원을 통해 강사의 전문성 개발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Jeong & Jeon, 2015). 졸업 후 물리치료사의 교육환경특성에 대한 조사연구(Hwang & Kwon, 2012)의 연구에서 학교 졸업 후 학회 교육을 수강하는 물리치료사의 연령층은 20대가 약 80%에 육박하여 OMP와 PNF 교육 모두 졸업 직후 학회 교육을 듣는 연령층임을 알 수 있다. 졸업 직후 치료사들이 PNF 교육을 주로 듣지만, 처음 교육을 받을 때는 치료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므로 강사의 지식과 실기전달이 수요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실기 내용을 적용할 기회가 없어지고 내용 또한 잊게 되므로 활용할 기회가 없어지고 코스 이수 후 임상현장에서 적용하려고 할 때는 그때의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적용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것도 한 이유가 될 것이다. 교육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 주제를 선택하여 연차가 높은 정회원들에게 코스 이외의 교육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V. 결론

본 설문조사는 KPNFA에서 처음 수행한 설문에 대한 정책과제라는데 의의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학회 설문조사에 기초가 되는 자료로 활용되었으면 한다. 이 설문을 검토하여 각 소속 임원들과 중앙회 임원들의 회원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불러 일으켰으면 하는 도화선이 되고 향후 회원이 되는 교육수요자들의 요구사항을 교육프로그램과 학회 정책에 잘 반영하여 회원 만족에 기반하는 학회로 거듭났으면 한다.

Acknowledgements

본 연구는 2018년도 대한고유수용성신경근축진법 학회의 정책 연구비로 진행되었음

Reference

- Adler SS, Beckers D, Buck M. PNF in practice : an illustrated guide, 3rd ed. Heidelberg. Springer. 2008.
- Bae SS, Lee HO, Goo BO, et al. Change and development of proprioceptive neuromuscular facilitation. *Journal of the Korean Proprioceptive Neuromuscular Facilitation Association*. 2003;1(1):27-32.
- Bang SB, Kim HB. A study of conformity of clinical education program in cardiorespiratory physical therapy. *Journal of Korean Cardiorespiratory Physical Therapy*. 2015;3(1):21-28.
- Fitzpatrick R. Surveys of patients satisfaction: I--important general considerations. *British Medical Journal*. 1991;302(6781):887-889.
- Hwang SS, Kwon HJ. The survey of the characteristics of educational environment on post-graduate physical therapis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Orthopecic Manual Therapy*. 2012;18(2):57-66.
- Jeong EH, Jeon BU. Analysis on the factors related to teaching professionalism of special education teachers. *The Journal of Business Education*. 2015;29(3):57-84.
- Ji MG, Lee MR. The convergence research on waiting time, hospital image, and patient satisfaction in dental care consumer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2018;8(4):27-35.
- Kabat H. Studies on neuromuscular dysfunction; new principles of neuromuscular reeducation. *Permanente Foundation Medical Bulletin*. 1947;5(3):111-123.
- Kim KJ. Evaluation of lecture delivered by O.M.P.T. On the subject of orthopedic physical therapy.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Orthopecic Manual Therapy*. 1998;4(1):21-33.
- Kim KJ. Evaluation of lecture delivered by O.M.P.T. On the subject of orthopedic physical therapy.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Orthopecic Manual Therapy*. 1999;5(1):27-38.
- Kim YM. A study of satisfaction of clinical education program in KAOMPT.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Orthopecic Manual Therapy*. 2017;23(2):59-67.